



골무꽃.



단풍나무 종자.



보리수.



참새줄나비.



송어.



(99) 순창 강천산 강천사

계곡 위에 서면 '숲의바다' 가 한눈에

내장산을 거친 호남정맥은 순창평으로 넘어와 응주봉-강천산-산성산-광덕산 등의 압능을 만들어낸다. 모두 500m급 낮은 산들이지만, 순창과 담양의 병풍이요, 전남북 도경계를 이룬다.

그 중 강천산은 산림청에 의해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선정된 명산이다. 명산이란 모름지기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이 많다. 산체의 높이와 크기를 비롯해서 자연생태적 가치와 사람들의 접근성과 기호성도 비중이 크지만, 빼어난 풍광과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무엇보다도 관건이다. 강천산이 100대 명산 가운데 49위로 꼽힌 것도 수려한 풍광과 신라고찰 강천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천사의 초창은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도선 국사에 의해서이다. 입진왜란 때 소실된 후 오랫동안 옛 영화를 찾지 못하다가 조선말에 와서야 재건되었으나, 다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고추장' 외에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는 순창에서 강천산은 거의 유일한 관광지이다. 그래서 군 당국이 198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온갖 정성을 쏟아왔다.

계곡 들머리에서부터 강천사로 가는 숲길은 비포장 흙길이다. 모래와 마사토가 적당히 혼합된 흙길은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아서 좋다. 절로 가는 길은 이렇게 견고한 흙길에 이어야 한다. 다만 노퍽이 넓고 일부구간이 직선화된 것이 아쉽다.

흙길 좌우로 단풍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극상림의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는 강천산 식생과도 궁합을 잘 맞추었다. 가을이면 밤잠스러운 내장산을 비껴서 강천산의 단풍을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암절벽과 폭포와 맑은 계류가 함께하여 격조 높은 가을을 연출해낸다.

이곳 단풍나무는 열매인 5~7개인 일반 단풍나무이다. 봄날에 보는 빨간 씨앗이 단풍처럼 아름답다. 단풍나무 씨앗은 빨간 날개를 달고 있어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다.

계곡 곳곳에 자리한 낙차(落差)는 용수를 쓰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물을 폭포처럼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낙차는 물속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멘트 없이 자연적으로 쌓여서 천연덕스럽기 그지없다.

강천산과 광덕산의 기암절벽들은 모두가 화산체이다. 강천산의 대명사인 아름다운 폭포들도 모두가 화산체 단애가 만들어낸 것이다. 병풍폭포는 자연암벽 위로 물을 펌핑(pumping)하여 쏟아지게 하는

인공폭포인데도, 주위 환경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계곡의 소에는 갈겨니를 비롯해 몇 종류의 민물고기가 노닐고 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송어이다. 순창군 당곡에서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로 방류한 무지개송어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들여와 전국에서 양식을 하고 있다. 육식어종은 아니지만,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역에 이따금 멧돼지들이 출몰하는데, '저들(猪突)'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공격성이 강해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5~6월은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계절이라 더욱 난폭하다. 이와 함께 집에서 키우던 것이 뛰쳐나와 야생화된 염소도 보고 되고 있다. 강천사에 이르는 동안 많은 야생화들을 만난다. 벌개떡굴, 골무꽃, 죽도리풀, 등굴래, 참나리, 지네고사리, 장구재, 선밀나무... 더러 당국이 심은 것도 있지만, 산중에 들면 자생하는 꽃들도 많다.

벌개떡굴은 줄기가 네모나고 전체에 향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잎은 들깨잎처럼 심장형을 이루고, 꽃은 자주색이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사찰 조경으로도 쓰임새가 많다.

골무꽃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여러해살이풀이다. 숲 가장자리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데, 풀 전체에 짧은 털이 나고 줄기가 네모난 것이 특징이다. 옛날 절에서 어린잎을 나물로 무쳐먹었다. 계곡 물속에 아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수온이 낮은 데도 연유하지만, 아기가 먹고 자랄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물이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반증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강천사가 나타난다. 초라한 암자 규모가 신라와 도선을 무색케 해준다. 이 넓은 강천산에 절당은 겨우 2000평, 전각이 앉은 경내지가 한눈에도 차지 않는다.

강천사 사세가 원래 이렇던 것이 아니다. 일찍이 열두 암자를 두었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다. 그랬던 강천사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은 멀지 않은 과거에 무지몽매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승가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빌리자면, 강천산을 당시 쌀 300가마에 팔아넘겼다고 한다.

유가(儒家)들이 승냥이처럼 설치던 조선시대에도 선대 조사들은 목숨 걸고 사찰 일가를 지켜왔다. 그런 사역을 현대에 들어와 사리사육과 무지몽매로 알게 모르게 팔아넘겼으니 천재(天災)나 천화(戰禍)로 잃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다.

경내 대웅전 외에는 모두가 요사 성격의 당우들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현형에 따라 하나씩



강천산 구장군폭포

기암절벽·병풍폭포 등 모두 화산체 단애 소산물

"쌀 300석에 넘어간 불국토... 반드시 되찾아야"

재건된 것이라 무질서한 느낌을 준다. 옹화당 처마 밑의 소구리들은 양식이 부족한 겨울산새들을 위하여 노스님이 마련해 놓은 먹이그릇이다.

경내의 팽나무, 느리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이 있다. 이렇다 할 조경은 되어 있지 않고, 뒷밭에 아재 대신 취나무와 두릅나무를 키우고 있다. 예로부터 취나무는 산중 수행자들에게 밥이요, 잔이요다.

절 마당에서 보면 오른쪽 산자락에 기암이 서 있는데, 모습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닮았다. 건너편 광덕산에도 사천왕 바위가 서 있지만, 모두가 남의 땅에서 세시니 바라볼 면목이 없다.

강천사에 승유배불의 시대를 반영하는 지내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지내는 도회지에 위치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고 있다. 아행성인(아행성인)은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산중사찰에서는 흔하게 나타난다. 거미나 곤충 따위를 잡아

먹고 산다. 강천산의 나비들은 좁은 계곡 쪽보다는 강천사 주변과 구장군폭포 지역 등 일사량이 많은 곳에서 주로 관찰된다. 참새줄나비는 주로 숲 가장자리나 계류 주변에 서식하는데 늦봄부터 여름까지 연 1회 나타난다. 물가에서 물을 뺏거나 탐방객들이 버린 음식이나 과일에 모인다.

곤충이 있는 곳에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개구리들은 저마다 우는 계절이 따로 있다. 5월 중 강천사 주변에서 우는 것은 거위가 청개구리들이다.

강천사 모과나무는 국내 최고령수로 하여 전복기 넘도록 지정되었다. 사찰 주변에 모과나무들이 많은 것은 옛 스님들이 사중의 약목으로 중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이다. 원래 경내에 있었는데,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담장 밖으로 밀려나버렸다. 땅을 잃으니 산천초목도 다 남의 것이 되었다.

모과나무를 조금 지나면 계류 건너 삼인대 비각이

서 있다. 조선 중종 때 폐비 신씨의 복위를 맹세한 이 지역의 세 관료들의 충정을 기린 비석이다. 당시 세 사람이 각자의 관인을 걸어 맹세했다는 소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계곡 위에 무지개처럼 걸린 현수교 위에 서면 계곡은 보이지 않고 숲의 바다만 끝없이 펼쳐져 있다. 군데군데 소나무가 있지만, 오래 전에 쇠뜨기에 들어섰다. 졸참나무와 신갈나무를 비롯해 참나무도 많지만, 남부은대수종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넓은 수목원을 연상케 한다.

그 중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들로는 층층나무를 비롯하여 보리수, 쉬향나무, 고추나무, 물참대, 국수나무, 쪽동백나무, 팔배나무, 병꽃나무, 짚레꽃, 그리고 땅비싸리까지 다양하다.

보리수는 주로 남부지방에 자라는 작은 관목이다. 잎과 줄기에 비늘 같은 은빛 털이 나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에서 연노란색으로 변한다. 한자로 '보리수(甫里樹)'라고 쓰기 때문에 부처님이 도를 깨우친 '보리수(菩提樹)'와 전혀 다른 나무이다.

현수교를 지나면 왼편으로 광덕산 정상으로 가는 산행길이 나 있다. 강천산의 조류는 아침저녁으로 많이 관찰된다. 여름철새로는 빠꾸기, 검은등빠꾸기, 노랑할미새, 붉은배새, 속독새, 파랑새, 꼬꼬리, 호랑지빠꾸 등이 있지만, 관광객이 드나드는 시간에는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활동한다.

구장군폭포는 맑은 편 광덕산에 있다.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것이 100m 나 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봄가을 갈수기 때는 물이 말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수기 때는 펌핑을 통해 인공폭포를 만든다.

구장군폭포를 지나면 오른쪽으로는 제2 강천호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는 선녀계곡과 연대암터로 이어지는 비룡계곡길이 이어진다. 대나무숲에 둘러싸인 연대암은 영조 때 편찬된 <속천군지>에 명적암, 용대암, 왕주암, 적지암 등과 함께 나오는 5개 산 내암자 가운데 하나이다.

모두가 전화를 걸어 주춧돌만 남긴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강천산 산중이 모두 빨치산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절터에 묘가 자리하고 있어서 만감이 교차한다. 호남의 소금강인 강천산은 우리 시대의 불교가 참회와 정성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불국토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에게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대광 합장

연락처 : 031)222-8269 / 017-377-04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98-16 선광사

산삼이란?

- 천중(진중)산삼(天中, 眞中)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임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 것으로 보우는 가늘고 씨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수가 가늘고 길며 약봉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세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 봐야 1년 2-3년 정도만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중(진중)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이 것이다.
- 지중산삼(地中)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난 씨

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 난것이 지중산삼이며, 뇌수의 굵기가 지중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 인중,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들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수가 두껍고 미세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중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중(진중), 지중, 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약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중(진중)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중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석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마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올라이트(Zeolite) 40%
●갈래질 : 모노미쉬, 황도판 ●크기 : 1,000mm×2,000mm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cm×45cm

희담석 에너지가 속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할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촌로 178-48 4층 401실 01038
TEL:023476-2335 FAX:023476-2905